

## 한·중 소무역의 성격과 운영 메커니즘

장영진\*

---

**요약:** 본 연구에서는 소무역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중 소무역의 성격을 규명하고, 소무역 활동이 직면하는 불확실성 내지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소무역상들이 동원하는 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한·중 소무역의 운영 메커니즘을 밝혀보고자 했다. 한·중 소무역은 비공식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이윤 추구 등 공식 부문이 당면하고 있는 사안들과 맞물리면서, 지방 정부와 세관, 기업, 그리고 해운사 등 공식 부문의 암묵적인 지원과 묵인 속에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중 소무역은 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운영에 있어 가족 네트워크, 민족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 및 신뢰 등 사회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한·중 소무역, 비공식적 성격, 사회 자본, 네트워크, 신뢰, 운영 메커니즘

---

### 1. 서론

#### 1) 연구 목적과 방법

소무역(cross-border small-scale trade) 현상은 일반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것의 주체인 소무역상은 초국적 공간과 흐름을 구성하는 행위자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흐름의 결절이라고 하면 흔히 글로벌 시티를 일컫지만, 소무역의 결절도 사람과 상품과 이미지가 흐르고 교차하는 경제활동의 중요한 결절이 된다(Yükseker, 2007; 장영진, 2010).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소무역 현상은 사회학, 경제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소무역은 1980년대 이후 중·동부 유럽 및 구소련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은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소무역의 비공식적 성격과 이러한 특성에서 기인하는 거래의 불확실성에 주목한다. 따라서 소무역 연구에서는 소무역상들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원활한 거래를 위해 동원하는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중심으로 소무역의 운영 메커니즘을 설명한다(Thuen, 1999; Wallace *et al.*, 1999; Williams and Baláz, 2002, 2005; Egbert, 2006; Yüksek, 2004, 2007).

한국과 중국 간 소무역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무역의 성장에 대한 여객항로의 역할과 규제강화로 인한 소무역의 조직화, 그리고 소무역 결절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뿐(조규생, 2007; 장영진, 2010), 한·중 소무역이 운영되는 메커니즘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중 소무역은 비공식

---

이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2010학년도 KNUE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

부문에 해당하는 소무역상은 물론이고,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기업과 정부 기관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한·중 소무역은 IMF 구제 금융을 계기로 공식 부문의 명시적인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성장 배경과 관련 주체들로 보건대, 소무역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소무역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작용을 규명함으로써 한·중 소무역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소무역이 운영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소무역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중 소무역의 성격을 규명하고, 둘째, 소무역 활동이 직면하는 불확실성 내지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소무역상들이 동원하는 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한·중 소무역의 운영 메커니즘을 밝혀보고자 한다.

그동안 사회 자본의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는 소무역이 이루어지는 주요 결정에 대한 답사와 소무역상들에 대한 면담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Thuen, 1999; Wallace *et al.*, 1999; Williams and Baláz, 2002, 2005; Egbert, 2006; Yükker, 2004, 2007). 이는 연구 주제의 특성상 양적 자료에 의한 논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통계 자료가 있다 해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무역상과 (사)경기도 평택항 소무역연합회, 해운사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담당자 등 소무역의 주요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했다. 먼저 '노반(사장) 과 '파이공(김꾼)'에 대한 조사를 위해 주요 소무역 항로인 인천-웨이하이(威海) 항로와 평택-룽청(榮成) 항로에서 파이공으로 참여하면서 선상 및 항구 지역에서 심층 면담 및 참여 관찰을 실시했고, 소무역 관련 기능에 관한 조사를 위해 인천항과 평택·당진항, 웨이하이(威海)항과 룽청(榮成)시 소재 룽옌(龍眼)항 지역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했다. 이상과 같은 참여 관찰 및 심층 면담, 그리고 현지답사는 2007년 8월과 2010년 1월에 주로 수행되

었다. 또한 답사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문헌 자료를 구득했다. 특히 (사)경기도 평택항 소무역연합회가 정리한 내부 자료와 이곳에서 발간한 계간지를 활용했다.

## 2) 소무역과 사회 자본

소무역은 일반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위험을 공유하면서 비공식적인 소규모 거래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소무역의 성공 여부가 소무역에서 직면하게 되는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소무역의 운영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는데 동원되는 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 자본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 사회학 및 정치학 분야에서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 과학 전반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Mohan and Mohan, 2002). 사회 자본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뒀으로써 획득되는 자원'으로서(Bourdieu, 1986)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Coleman, 1988). 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보면, 사회 자본은 '참여자들의 공동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게 해주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 사회적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Putnam, 1995). OECD(2001, 41)에서는 사회 자본을 '집단 내, 집단 간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된 규범과 가치, 이해 및 네트워크'로 정의한다. 오늘날 주요 연구자들은 집합적 행위를 촉진하는 사회 자본의 주요 요소로서 네트워크와 신뢰, 그리고 규범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Bourdieu, 1986; Coleman, 1990; Putnam, 1993).

최근 사회 과학 전반에서 사회 자본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자 일부에서는 이 용어의 남용이나 무비판적 수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복잡한 사회적 현상과 상호작용을 사회 자본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과도하게 단순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Healy, 2004). 또한 사회 자본이라는 용어가

연구자들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어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한편, 공간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주로 성공적인 산업 집적지를 대상으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사회 자본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Cohen and Field, 1999; Lee *et al.*, 2000; 남기범, 2003, 조혜정·이상민, 2008). 나아가 신뢰의 형성 과정과 같은 미시 사회적 상호작용과 산업 지구나 클러스터와 같은 중위 수준의 구조,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나 가치 사슬과 같은 거시적 현상 사이의 철저한 연계를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Murphy, 2006).

사회 자본 연구는 연구 대상 및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Woolcock, 1998; 유석춘·장미혜, 1998). 하나는 소수민족 경제와 같이 개인적인 네트워크 분석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및 시민사회 수준의 조직 특성과 같은 거시적 접근이다. 전자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 자본을 논의한 부르디외와 콜만, 그리고 이들을 계승한 포르테스(Portes, 1998)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반면, 후자는 사회 자본을 집단적 차원으로 확장한 퍼트남의 논의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소무역상 및 이와 관련된 행위자들 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전자의 미시적 연구 방식을 따른다.

그동안 사회 자본을 통해 소무역이 이루어지는 주요 메커니즘을 설명한 연구들에 의하면, 소무역 환경은 소무역상들의 통제력 밖에 위치하여 예측을 불허하므로, 소무역상들은 가족이나 친척, 민족 또는 기타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결속을 다짐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있다. 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환경을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근심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겪는 위험은 주로 자본 준비, 정부 정책의 변화, 세관과 경찰에 의한 제약 등이다. 소무역상들이 이용하는 사회 자본은 위와 같은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하므로, 결국 사회 자본은 소무역 활동에서 나타나는 거래 비용의 저감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구소련과 중·동부 유럽 등 전환기 경제에서는 안정된 사회에 비해 잠재적 위험과 거래 비용이 높으므로 사회 자본을 통한 거래 비용의 저감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소무역상들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등 사회 자본에 투자하게 된다(Wallace *et al.*, 1999; Egbert, 2006).

소무역에 관한 경험 연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Wallace *et al.*(1999)은 폴란드를 비롯하여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에서 이루어지는 소무역을 대상으로 경제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매개되는 방식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들은 소무역상들이 네트워크와 신뢰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자본을 통해 소무역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는지를 설명했다. Williams and Baláz(2002)는 우크라이나 소무역의 특성 및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과거 국가사회주의에서 기원하는 사회적 관계 및 사회 자본이 소무역의 경쟁우위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고찰했다. 이후 Williams and Baláz(2005)는 슬로바키아의 베트남 소무역상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소무역상들이 로컬 및 초로컬(translocal) 수준에서 나타나는 가족 네트워크 및 민족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 자본과 세관 및 경찰 관련 정보, 그리고 정서적 지원 등에서 도움을 받았음을 규명했다. Egbert(2006)는 불가리아와 터키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소무역에 관한 연구에서, 거래비용 및 주인과 대리인 개념과 더불어 사회 자본의 주요 요소로서 가족 네트워크와 민족 네트워크 및 기타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신뢰 등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Yüксеker(2004)는 터키 이스탄불의 Laleli 지구를 대상으로 이곳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소무역상과 터키인들의 신뢰에 기초한 거래를 탐구했다. 이 연구에서 Yüксеker는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 타민족 간 거래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동일한 파트너와의 반복적 거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뢰를 강조한다.

이와 같이 소무역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의 요소들 가운데 가족 및 민족 네트워크와 기타

사회적 네트워크 등 네트워크 관련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신뢰에 관한 논의가 그 뒤를 잇는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신뢰에 비해 네트워크를 강조한 이유는, 신뢰가 흔히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무형의 요소로 간주되는 반면, 네트워크는 보다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요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Newton, 1997).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와 신뢰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자본이 소무역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 2. 한·중 소무역의 성격

한·중 소무역은 1990년 인천-웨이하이(威海) 간 항로가 개설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오늘날에는 고품층을 비롯한 한계 노동력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다수의 소무역상들이 선상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양국의 항구지역을 상품과 함께 반복적으로 왕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한·중 소무역은 규제의 강화로 인해 개인상인 중심에서 노반과 파이공 중심의 계층화된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한·중 소무역은 양국 간 산업구조와 임금수준의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한 공간적 분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상인의 주도하에 생필품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소련 및 중·동부 유럽의 소무역과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장영진, 2010).

일반적으로 소무역상들은 비공식적인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든다. 소무역상들이 국경을 넘는 것은 합법이지만, 거주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것은 불법이고 소지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며 상품을 판매하는 지역에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러한 사업은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으며, 해당 정부에서도 소무역의 경제적 기여를 고려하여 문제 삼지 않으므로써 소무역의 비공식적 성격에 일조하고 있다(Yükseker, 2004,

2007).

한·중 소무역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무역업이 완전 자유화되어 누구나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무역거래를 할 수 있다(구종순, 2003). 그러나 원·부자재의 수출(소무역상들은 물품의 운송 및 통관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엄밀하게 보아 택배에 해당함)과 농산물의 수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중 소무역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은 물론 관세를 면제받은 개인용 수하물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비공식적이고 비합법적이다. 그러나 한·중 소무역은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해운사와 공생관계에 놓여 있고, 소위 수출품(택배 상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의 유통 부문에 대한 수요와, 수입품을 구매하는 농산물 수집상의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정무기관과 세관이 이러한 과정을 묵인함에 따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립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소무역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운사와 물류업체, 세관,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소무역상 등 소무역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품을 공급하는 물류업체들과 여객항로를 운영하는 해운사들은 지속적인 이윤 창출을 위해 소무역상인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수출품을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물류비용 및 유통 시간의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무역상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파이공으로 소무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참자들을 노반에게 소개해줌으로써 소무역상들의 활동을 돕고 있다. 소무역상의 입장에서도 수출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중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 내용에서 물류업체가 파이공으로 참여하는 경로로 이용됨을 알 수 있다.

인천항 부근의 ○○무역이라는 곳이 이 일을 하러는 사람과 보따리상을 연결해 주는 곳이다. 나는 평택에서 시작했는데, 평택항 근처에도 그런 곳이 있

다. 눈여겨보면 금방 알 수 있다(한국인, 파이공, 남, 40대, 인천-웨이하이 항로, 2007. 8. 4. 면답).

한편, 한·중 여객 항로 가운데 일부는 소무역상이 여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무역상들이 해당 선박의 이용을 중단한다면 항로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장영진, 2010). 이처럼 소무역상들과 공생 관계에 있는 해운사의 입장에서 노반들과의 호혜적 관계는 필수적이다. 노반의 항로 선정은 곧바로 수많은 파이공들의 승선권 판매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해운사가 노반이나 화주들을 어떻게 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승선권 구매와 관련하여 소무역상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표 1).

배가 움직일 때 화주들도 동행한다. 노반과 화주는 선사에서 특별우대를 해준다. 할인을 해주거나 로얄실을 배정해주고 고정된 방이 있어서 웬만한 짐을 가져다 놓고 다닌다(한국인, 노반, 남, 60대, 평택-릉청 항로, 2010. 1. 2. 면답).

또한 평택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무역상들이 사단법인을 설립할 당시 (주)C&훼리에서 작성한 축사를 보면 이와 같은 호혜적 관계를 명시적으로 알 수 있다.

... 한중 무역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소무역 상인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 한중 간 무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경기도에서 인가한 (사)

표 1. 소무역상에 대한 승선권 관련 안내문

7월 20일부터 8월 15일 성수기에는 단체 여행객 및 개인 여행객이 다소 많은 관계로 매진되는 경우가 우려되오니 소무역 고객 여러분께서는 미리 승선권을 예약·예매하시어 출국시 승선권 매진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WEIDONG FERRY

출처: 현지조사(인천항)

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 소무역 상인 여러분과 평택항의 선사들은 긴밀히 협조 및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 (이준선, 2008, 33).

둘째, 세관은 대부분의 상인들이 생계형 소무역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상용으로 들여온 농산물을 면세 통관시키고 통관 범위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소무역 활동을 묵인하고 있다. 세관은 자가소비용 휴대품의 판매 및 수집이 불법임을 명시하면서도(표 2) 상용목적의 중국산 농산물을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해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관세법에 명시된 면세통관 범위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아 8~50kg까지 기준을 초과하여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표 3). 기준을 초과하여 통관되는 분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소무역상들에게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기여한다. 이처럼 상용 목적의 농산물을 수하물로 통

표 2. 인천세관의 휴대품 관련 안내문

〈안내문〉

자가소비용으로 면세 받은 농산물 등 여행자 휴대품을 판매·수집·운반·보관하면 관세법에 의거 처벌됩니다. 밀수 신고는 국번 없이 125

인천세관장

출처: 현지조사(인천항)

표 3. 농림축수산물 1인당 실제 통관허용량

시기	실제 통관허용량(기준치 초과량)
1999. 9~2008. 12	100kg (+20~50kg)
2009. 1~5	85kg (+35kg)
2009. 5~10	60kg (+10kg)
2009. 11~현재	58kg (+8kg)

출처: 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 내부자료(2009); 조규성(2007); 소무역상과의 면답(2010. 1. 3).

관시킴에 따라, 동일세관 소속 공무원이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소)에서는 통관을 시키고 CIQ 밖에서는 곡물 수집상들을 단속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그렇지만 구소련 및 중·동부 유럽의 소무역이 마피아 등 범죄 집단과 연루되거나 통관 과정에서 뇌물 관행이 만연해 있고, 개별 소무역상의 통관 규모가 컨테이너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등 불법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것과 비교할 때, 한·중 소무역은 일반적인 면세통관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되는 등 세관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는 소무역이 비공식적이고 비합법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무역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소무역을 장려했다(표 4). 이러한 교육은 운영 주체를 막론하고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같은 정부기관 및 준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우수한 민간 컨설팅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 한국능률협회, 그리고 충남대학교나 계명대학교 등의 고등 교육기관에서도 소무역 창업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

회적으로 소무역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기여했다.

소무역상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소무역의 활성화가 소무역상은 물론 관련 일자리의 증가를 가져옴에 따라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주장을 보여준다.

평택-룡청(榮淸) 항로의 경우, 1항차에 보통 노반 40명, 승무원 50명, 타이공 700명이 승선하고 여기에 선식 납품업자, 선박 수리 등등 관련자들을 포함하면 약 2,000여 명이 움직인다. 고용효과가 상당하다. 수입단체는 혼자 먹고살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함께 먹고 산다(한국인, 노반, 남, 50대, 평택-룡청 항로, 2010. 1. 4. 면담).

넷째,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나 인천광역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무역상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8년 소무역상들이 설립한 경기도 평택항 소무역 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 인가하고 계간지의 발행을 지원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공식적인 지면을 통해 소무역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다음은 소무역상들의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의 측사이다.

... 소무역인 여러분 ... 여러분이 편리하게 무역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 평택항 '마린센터'를 건립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 설립을 통해 목적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 (김문수, 2008, 13)

... 우리 도에서도 '사단법인 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한석규, 2008, 29)

표 4. 소무역 창업 교육기관

구분	기관명
정부기관 및 준정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li> <li>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인력개발센터</li> <li>한국생산성본부</li> </ul>
민간교육 컨설팅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표준협회</li> <li>한국능률협회</li> <li>대웅경영개발원</li> <li>한국재정경제연구소</li> <li>CTI국제통상개발원</li> <li>경영기술개발원</li> </ul>
전문학교 및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양직업훈련학교</li> <li>한성직업전문학교</li> <li>충남대학교</li> <li>계명대학교</li> </ul>

출처: 김용재(2000); 구중순(2003); www.newsis.com

나아가 경기도 평택시항만지원사업소에서는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소무역상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의 호텔에서 노반 중심의 소무역상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들이 평택·당진항의 선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경기평택항만공사 홍보마케팅팀 담당자와 면담, 2010, 1. 3.). 이는 지방 정부가 소무역에 대한 목인 수준을 넘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소무역의 주요 주체인 소무역상들은 비공식적이고 비합법적인 거래에 종사하면서도 공식 부문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양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예컨대, 소무역 종사자들은 소무역상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사단법인 경기도 평택항 소무역연합회'를 설립하고 경기도의 지원 하에 계간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동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경기도지사, 평택시의회, 중소기업청 등 공식 부문의 관계자들과 좌담회 및 승선체험 등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소무역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있다(표 5). 이와 관련하여 소무역상들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물류기능을 제공하고 재고 상품의 수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다. 이는 다음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중국 현지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의 손과 발이 되어 원·부자재 및 각종 샘플(누락된 공산품, 수출 원단,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생활필수품, 식품류) 등을 신속 정확하고 저렴하게 체계적으로 운송하고 … 국가 IMF 사태 때에는 … 연간 10억 달러~15억 달러의 한국 상품을 면세 수출하였으며 … ((사)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 2008b, 26-29)

이상과 같이 한·중 소무역은 비공식적이고 비합법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이윤추구 등 공식 부문이 포기하기 어려운 사안들과 맞물리면서 공식부문의 암묵적인 지원과 목인 속에 운영되고 있다. 동시에 통관과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의 통제를 받고 있어 다른 국가들의 소무역과 달리 정부 기관으로부터 제어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한·중 소무역은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경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단순히 '비공식적'이라는 단어만으로 그 성격을 모두 담아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3. 한·중 소무역의 운영 메커니즘과 사회 자본

#### 1) 가족 및 민족 네트워크의 역할

한·중 소무역은 정부 기관과 세관, 지자체, 기업 등 공식 부문의 목인과 협력, 그리고 높은 통제 수준으로 인해 소무역 활동에서 겪게 되는 위험 내지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출입 물품의 대규모 통관은 어렵지만 일정 수준의 면세 통관이 가능하고, 비교적 저렴한 운임에 운송과 숙박이 가능하며, 수출품(택배 상품)의 공급과 농산물의 판로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렇다고 해서 소무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소무역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노

표 5. 소무역상들의 공식부문과의 접촉 내용

시기	공식부문과의 접촉 내용
2008. 8.	(사)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 창설
2008. 9.	평택시의회의 승선체험 및 좌담회
2009. 6.	재위해 한인상공인 물류사업 설명회
2009. 7.	김성수 국회의원의 현장 체험
2007. 8.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
2009. 12.	중소기업청 연구원들과 간담회
2009. 12.	중소기업청 연구원들의 승선 및 현장진단

출처: (사)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2008a, 38-39; 2009a, 6; 2009b, 7-8; 2009c, 22)

반이나 개인상인은 단순히 통관 업무에 동원되는 다수의 파이공들에 비해 소무역과 관련된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가족 및 민족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신뢰 등 사회 자본의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한·중 소무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소무역상들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원 간 강한 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폐쇄적인 가족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한·중 소무역의 주요 수입원은 농산물이므로 농산물의 구매와 통관, 그리고 통관된 곡물의 판매 또는 수집은 소무역의 핵심 업무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항구지역에는 농산물의 구매 및 포장, 그리고 소위 수출품(택배 상품)의 중국 현지 배송을 담당하는 농산물 상가, 일명 '파이공 상가'가 집적해 있다.

소무역상들은 농산물 구매와 관련하여 농산물의 품질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분업에 의한 위험 및 이윤 분할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 상가의 운영과 통관 업무를 가족 또는 친인척이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통관된 곡물의 수집 분야에까지 가족이 참여하면서 가족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수집상은 특정 노반이 이끄는 팀의 농산물을 전량 수집하므로 1회 수집하는 농산물의 가치가 매우 크며, 이를 자신들만의 경로를 통해 유통시키고 있다. 이처럼 수집상은 조세를 부담하지 않은 채 대량의 농산물을 수집·유통시키고 있어 세관의 주요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위험부담이 매우 큰 분야이므로 소무역상들과 상호 신뢰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농산물 구매와 통관, 그리고 통관된 곡물의 수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가족 및 친인척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우리는 부부가 함께 배를 탄다. 남편은 상인운영위원회 총무 일을 보고 있다. 큰오빠가 상무성[중국 내 농산물 상가를 총괄하고 사촌 오빠가 평택에서 곡물 수집을 맡는다(한국인, 노반, 여, 40대, 평택-룡청

항로, 2010. 1. 3. 면담).

또는 어머니가 통관을 담당하고 아들이 중국에서 농산물 상가를 맡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중국동포 개인 상인이 가족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준다.

아들은 위에서 가게를 하고 나는 보따리를 한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싸야 하니 이름을 알려주면 아들을 보내겠다.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사오자(중국동포, 개인상인, 여, 50대, 인천-웨이하이 항로, 2007. 8. 5. 면담).

이러한 가족 네트워크는 구성원 간 강한 유대를 기반으로 주로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가 유통되며, 상호 교환의 빈도가 매우 높아 상당히 폐쇄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폐쇄성은 정보의 확산을 저해하고 내적인 신뢰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데 기여한다(Coleman, 1988; 최종렬, 2008).

둘째, 한·중 소무역은 언어와 제도가 상이한 중국과의 교역이므로 언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민족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무역상들은 현지 언어를 잘 모르거나 로컬 사업 파트너가 필요할 때 흔히 민족 네트워크를 활용한다(Wallace *et al.*, 1999). 소무역상들은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받기 때문에 중국 측의 업무는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하고 중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중국동포와 거래하거나 그들을 고용하는 등 민족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농산물을 구매할 때 한국인 소무역상들은 주로 중국동포가 운영하는 상가를 이용함으로써 외국과의 거래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한편, 중국동포 소무역상들의 경우에도 수입한 농산물을 한국에 취업한 동포들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농산물 판매 부문을 민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결하기도 한다. 다음 사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 판로를 뚫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조선족들은 식당에서 일하는 조선족을 통해 판로를 뚫는다.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판로가 안정적이다(한국인, 개인상인, 남, 50대, 인천-웨이하이 항로, 2007. 8. 6. 면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으로 보건대, 소무역상들은 농산물 구매 및 판매에서 오는 위험을 회피하고 수익의 분배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인척을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나아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고자 동일민족과의 거래를 선호한다. 이와 같이 가족 및 민족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현상은 구소련 및 중·동부 유럽을 사례로 한 소무역 연구에서도 중요한 운영 메커니즘으로 지적되고 있다(Wallace *et al.*, 1999; Williams and Baláz, 2005; Egbert, 2006).

## 2) 사회적 네트워크의 역할

한·중 소무역은 소무역 자체의 불확실성과 통관 규제의 강화로 인해 소수의 노반과 다수의 파이공으로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앞에서도 논의한 것처럼 노반은 소무역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반면, 파이공은 상용 목적의 화물을 개인 수하물로 가장하여 통관시키는 수동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노반과 파이공은 소무역에서 직면하게 되는 위험의 정도에 차이가 크고 이에 따라 각각 집단 내 사회 자본의 형성 및 활용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첫째, 노반은 소무역의 여러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 간에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란 가족 및 민족 네트워크를 제외한 기타 사회적 관계에 기반 한 네트워크를 말한다. 노반들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지만, 동시에 상호 협력하지 않고는 소무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에서 제시된 통관의 불확실성은 가

족 네트워크나 민족 네트워크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소무역상들 특히 노반 간 긴밀한 교류를 통해 항구별 세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 평소에는 느슨하게 단속을 하다가 추석 무렵 우리 농산물이 출하되고 농가에서 항의를 하게 되면 갑작스레 단속을 강화하고, … (구종순, 2003, 38)

… 어떤 때는 청도가 많고 어떤 때는 위해가 많은데 세관에서 검사를 할 때 많이 풀어주면 보따리상들이 늘어난다(인천항 여객터미널주식회사 관계자, 2010. 1. 3. 면담).

노반은 과거 개인 상인으로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오랜 경험을 통해 소무역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노반들은 거의 1년 내내 모든 항차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인 대면접촉을 통해 상호 관계적 근접성(relational proximity)을 형성한다. 특히 노반 간 협력은 해운사별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상인운영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노반은 상인운영위원회의 회원으로서 해운사와 협력하며, 통관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공유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위험을 예방하는 등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통관 관련 법규와 규제에 관한 최신정보의 수집을 단독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노반은 이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끊임없이 투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문제 해결은 소무역과 관련된 거래비용의 저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노반들은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행위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탐색 및 획득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저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정보 획득이나 물질적 지원에도 기여하지만 어려운 일을 함께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주기도 한다.

둘째, 노반들은 내적으로는 상호 작용의 빈도가 높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반면 외부인들을 배제함으로

써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특정 노선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노반들은 세관의 통관 정보를 수시로 점검하고 숙지해야 할 뿐 아니라 해운사와의 협의를 통해 운송 및 통관이 무사히 진행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친분 관계에 의한 정보 교류가 생존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외부인들과 공유되지 않을뿐더러 소무역에 종사하는 파이공들과도 공유되지 않는다. 파이공은 노반의 지시에 따라 통관 업무를 수행할 뿐, 어떠한 고급 정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역할의 차이로 인해 노반과 파이공의 관계는 매우 피상적이다. 따라서 노반 간 네트워크와 파이공 간 네트워크는 별도로 존재하며, 이들 간 교류는 업무 지시 수준에서 이루어질 뿐이다. 이러한 폐쇄성은 외부인에 대한 배제를 의미할 뿐 아니라 소무역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배제와 진입 장벽은 평택-룽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파이공과의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무역 일을 배우려고 파이공으로 일하고 있다. 파이공 경력이 5년이 넘었다. 대중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겠는데, 곡물을 어디에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노반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한국인, 파이공, 남, 30대, 평택-룽칭 향로, 2010. 1. 2. 면담).

Coleman(1988)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폐쇄성이 사회 자본 형성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내부 구성원 간 높은 폐쇄성 및 강한 연대가 집단 내부의 정보 공유와 경제적 효율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셋째, 노반과 달리 파이공들은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사회 자본이 제한적이다. 파이공들 간 관계는 비교적 일시적이고 일회적이며 참여자의 수도 많기 때문에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개방성은 낮

은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파이공은 사회적 관계가 긴밀하게 구축되기 어렵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사회 자본 또한 제한적이다.

예컨대, 노반은 파이공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항구 인근에 광고지를 부착하거나 '교차로'나 '벼룩시장' 등의 무료 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있다. 이와 같이 파이공의 모집은 비교적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파이공 간 네트워크가 개방성을 나타내는 주요 배경이 된다. 이는 다음 면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구[파이공]를 모집할 때는 팀별로 '교차로'나 '벼룩시장'에 계속 광고를 낸다. 사람들이 한두 번 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계속 바뀌니까. 나이 60세 이상, 숙식 제공, 월수 〇〇만원 보장 식으로. 광고를 내는 지역은 주로 서울, 경기, 충청이다(한국인, 노반, 남, 40대, 평택-룽칭 향로, 2010. 1. 3. 면담).

이와 같이 한·중 소무역은 단체상인 중심의 조직화로 인한 소무역상의 계층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인들 간 역할의 분화가 나타났고 이러한 역할의 차이는 상인들이 소무역에서 직면하게 되는 위험 부담의 계층 간 차별화를 가져왔다. 이는 사회적 관계 및 사회 자본에 대한 필요성의 차별화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계층별로 동원 가능한 사회 자본의 차이를 유발하게 되었다.

### 3) 신뢰의 역할

한·중 소무역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자본의 또 다른 요소는 신뢰이다. 구성원 간 협력을 위해서 서로 간의 신뢰는 필수적이기 때문에(이재열, 1998) 신뢰는 사회 자본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서 신뢰란 공동체 내에서 상호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믿음(Coleman, 1988; Putnam, 1993; 조혜정·이상민, 2008)을 말한다. 소무역상들

은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데, 지금까지 논의한 민족 네트워크나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신뢰를 구축하는 장이 된다. 그렇지만 네트워크에 참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성원 간 신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소무역 경험이 적은 초보자의 경우 동료 상인들과 함께 소무역에 종사한다고 해도 상호 경쟁관계로 인해 거래처의 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중국의 농산물 상가에서 중국 동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불량 농산물 구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신뢰의 부재로 인한 기회주의적 행동과 어려움은 개인 상인으로 활동한 김계수(2001)의 체험기에서 잘 드러난다.

면세점에서는 임페리얼 술을 사기 위해 아우성이 다. ... 얼마 남으며 어디에 파느냐고 몇 사람을 잡고 물어봐도 대꾸는커녕 정신 나간 사람 대하듯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이씨도 술을 샀지만 정작 내게는 선 물이라고 얼버무리는 것을 보면서, 보따리 세계는 자신 외는 믿을 사람이 없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한다(김계수, 2001, 84).

제일 좋은 고추라고 킬로그램 당 20위안을 주고 샀는데 가져와서 보니 폐기처분해야할 만큼 좋지 못한 고추로 진공포장 한 사실을 알았다. ... 결국 가져갈 때 속고 가져와서 반쯤할 때 속고 이중으로 속는 셈이다. ... 나중에 집에 와서 달아보니 가져온 것이 저울 눈속임까지 당한 것이 아닌가(김계수, 2001, 93).

소무역 초보자들의 경우, 이와 같은 어려움은 신뢰를 형성할 시간과 경험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신뢰는 장기간의 거래 관계와 인간관계에서 형성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조혜정·이상민, 2008). 노반들과 같이 공동운명체라고 여겨질 만큼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면 상호 협력과 정보의 공유가 일정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농산물 상가와 거래에서 오는 문제는 기회주의적 행위가 업계에 부정적인 평판을 형성함에 따라 거래에서 배제되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점차 해결될 수 있다. 이처럼 장기간의 거래 과정에서 검증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 기반적 신뢰(process-based trust)(Zucker, 1986)는 경제적 거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뢰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신뢰는 다시금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기제가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와 신뢰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4. 결론

소무역, 일명 보따리 무역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간 교역으로서, 지역 간 인적, 물적 거래와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는 지리학의 주요 관심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무역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중 소무역의 성격을 파악하고, 소무역 활동이 직면하는 불확실성 내지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소무역상들이 동원하는 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한·중 소무역의 운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주체의 특성상 양적 자료에 의한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심층면담과 참여 관찰 등 질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한·중 소무역은 비공식적이고 비합법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정부의 지역 경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이윤 추구 등 공식 부문이 포기하기 어려운 사안들과 맞물리면서 공식 부문의 암묵적인 지원과 묵인 속에 운영되고 있다. 동시에 한·중 소무역은 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무역에 비해 통관과 관련하여 공식 부문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통계를 받고 있다. 이처럼 한·중 소무역은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의 경계에서 활동함에 따라 단순히 ‘비공식적’이라는 단어만으로 그 성격을 담아 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둘째, 한·중 소무역은 공식 부문의 목인과 지원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소무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무역상들은 소무역의 주요 수입원인 중국 산 농산물의 구매와 통관 및 수집 등 전 과정에서 직면하는 위험 및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인척을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거나 동일 민족을 활용하는 등 가족 및 민족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구성원 간 강한 유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폐쇄적인 성격을 갖는다.

셋째, 한·중 소무역의 핵심적인 행위자인 노반들은 내적으로는 긴밀하게 협력하는 반면 외부인들을 배제함으로써 폐쇄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무역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를 동원하고 있다. 반면 파이공은 노반에 비해 업무의 특성이 수동적이고 구성원 간 관계의 지속성이 낮기 때문에 매우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므로 동원 가능한 사회 자본도 제한적이다. 이와 같이 계층별로 동원 가능한 사회 자본의 차이는 소무역의 계층화로 인한 역할의 차이와 이로 인한 위험 부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넷째, 한·중 소무역은 사회 자본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인식되는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동한다. 장기간의 거래 과정에서 검증을 통해 형성된 과정 기반적 신뢰는 소무역의 안정적인 거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신뢰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신뢰는 다시금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기제가 된다. 이상과 같이 한·중 소무역의 주요 행위자들, 특히 노반들은 소무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족 및 민족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등 사회 자본의 주요 요소를 동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사

중국 현지 조사 및 선상 조사에 함께 참여해준 합동식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 참고 문헌

- 구중순, 2003, “개인 소규모 무역업에 관한 연구,” 경영경제 연구 26(1), pp.19-42.
- 김계수, 2001, 보따리장수, 산교.
- 김문수, 2008, “인사말,” 사람과 보따리 2, p.13.
- 김용재, 2000, 보따리무역에서 오피상으로 성공하기, 청람.
- 남기범, 2003, “서울 신산업 집적지 발전의 두 유형: 동대문 시장과 서울벤처벨리의 산업집적,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제도화 특성에 대한 비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1), 45-60.
- (사)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 2008a, “좌담회,” 사람과 보따리 1, pp.38-39.
- (사)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 2008b, “호소문,” 사람과 보따리 2, pp.26-29.
- (사)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 2009a, “평택시 소무역상인과 재위해 한인상공인 물적 교류를 위한 사업 설명회,” 사람과 보따리 4, p.6.
- (사)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 2009b, “간담회,” 사람과 보따리 5, pp.5-8.
- (사)경기도평택항소무역연합회, 2009c, “중소기업청에서도 소무역상인 제도권 진입을 위한 연구가 시작됐다,” 사람과 보따리 6, p.22.
- 유석춘·장미혜, 1998,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그린, pp.15-57.
-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 사상 37, pp.65-93.
- 이준선, 2008, “축하 메시지,” 사람과 보따리 1, p.33.
- 장영진, 2010, “한·중 소무역의 변화 과정과 공간적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5(5), pp.628-646.
- 정병은, 2008, “향우회 사회자본과 지역주의,” 류석춘 외 5인 공저, 한국의 사회자본, 백산출판사, pp.247-285.
- 정병은·장충권, 2006, “‘노가다’의 사회자본 형성과 한계:

- 건설일용근로자의 연결망, 신뢰, 호혜성,” 사회연구 12, pp.9-37.
- 조규생, 2007, 한중 웨리호의 서비스 증대를 위한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혜정·이상민, 2008, “산업지구 내에서 사회자본의 역할: 을지로 인쇄지구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양대 사회과학논총 27, pp.145-190.
- 최중렬, 2008,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류석춘 외 5인 공저, 한국의 사회자본, 백산출판사, pp.17-72.
- 한석규, 2008, “축사,” 사람과 보따리 1, pp.28-29.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ohn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p.241-258.
- Cohen, S. and Fields, G., 1999, “Social capital and capital gains in Silicon Valley,”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1(2), pp.108-130.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S95-S120.
- Coleman, J.,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Egbert, H., 2006, “Cross-border small-scale trading in South-Eastern Europe: Do embeddedness and social capital explain enough?,”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0(2), pp.346-361.
- Healy, T., 2004, “Social capital: old hat or new insight?,” *Irish Journal of Sociology* 13(1), pp.5-28.
- Lee, C.-M., Miller, W., Hancock, M. and Rowen, H., 2000, *The Silicon Valley Edge: A Habitat for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Stanford University Press.
- Mohan, G. and Mohan, J., 2002, “Placing social capital,”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6(2), pp.191-210.
- Murphy, J., 2006, “Building trust in economic spa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0(4), 427-450.
- Newton, K.,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pp.575-587.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Paris: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24.
- Putn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pp.35-42.
- Putnam, R.,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pp.65-78.
- Thuen, T., 1999, “The Significance of Borders in the East European Tran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3(4), pp.738-750.
- Wallace, C., Shmulyar, O., and Bedzir, V., 1999, “Investing in social capital: The case of small-scale, cross-border traders in post-communist central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3(4), pp.751-770.
- Williams, A., and Baláz, V., 2002, “International petty trading: Changing practices in Trans-Carpathian Ukrain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6(2), pp.323-342.
- Williams, A., and Baláz, V., 2005, “Winning, then losing, the battle with globalization: Vietnamese petty traders in Slovakia,”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9(3), pp.533-549.
- Woolcock, M.,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pp.151-208.
- Yükseker, D., 2004, “Trust and gender in a transnational market: The public culture of Laleli, Istanbul,” *Public Culture* 16(1), pp.47-65.
- Yükseker, D., 2007, “Shuttling goods, weaving consumer tastes: Informal trade between Turkey and Russia,”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1(1), pp.60-72.
- Zucker, L., 1986,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 pp.53-111.

교신: 장영진,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 7번  
지,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전화: 043-230-3649,  
이메일: congo700@hanmir.com

Correspondence: YoungJin Jang,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an 7, Darak-ri, Gangnae-myeon,  
Cheongweon-gun, Chungbuk, 363-791, Korea, Tel:  
+82-43-230-3649, e-mail: congo700@hanmir.com

최초투고일 2011년 11월 13일

최종접수일 2011년 11월 24일

##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al Mechanism of Sino-South Korean Cross-Border Small-Scale Trade**

YoungJin Jang\*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discover the characteristics of Sino-South Korean cross-border small-scale trade, which involves various players. Through this characteristics, this study ultimately intends to identify an operational mechanism of Sino-South Korean cross-border small-scale trade by investigating social capital as mobilized by small-scale trad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expected to help understand how small-scale merchants address the uncertainty or risks surrounding their trade. Although it is an informal economic activity, the cross-border small-scale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related to issues of the formal economy, such as job creation, benefits for local economies, and profit-seeking. Owing to this characteristics, small-scale trade is being conducted with the connivance of, or even with the tacit support from formal organizations, including municipal governments, customs, corporations, and shipping companies. Like trade in other countries, Sino-South Korean cross-border small-scale trade also requires different types of social capital, such as family networks, ethnic networks, social networks, and trust.

**Keywords** : Sino-South Korean cross-border small-scale trade, informal characteristics, social capital, network, trust, operational mechanism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